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반석에서 나오는 물 성경: 민수기 20장 1-13절

Tag: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지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과중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었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어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브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민20:1-13)

구약성경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다.

1. 출 17장 1-7절, 그 반석을 치라.
2. 민 20장 1-13절,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출17장. 신평야에서 르비딤.(시나이 반도 남쪽) 맞사 또는 브리바라 함-다투었음.

민20장. 신평야에서 가데스.(시나이 반도 북쪽) 브리바라 함. 다투었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은 출애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은 40여년 가까이 지난 후 미리암이 죽고 나서.

그러나 상황은 매우 유사함. 두 상황 모두 바위나 반석이 깨어진 다음에 물이 나왔다는 언급은 없으나, 시편에 바위가 깨어지고 그 사이로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시78:15)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78:16)

광야는 가물기 쉬운 장소였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물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많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 물 사건은 물은 있으나 너무 쓰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던져넣으시게 하였고, 물은 단물이 되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24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
니라 (민20:24)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데
그는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그때 모세나이 120세,
아론은 123세, 미리암은 대략 130세 즈음에 죽었을 것이다. (같은 해
든지 그 이듬해든지)

왜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별을 받게 되었을까?

아무튼 이즈음 모세와 아론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 때문에 침울한 상
태에서 식수 문제가 터진 것이다.

모세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에 가서 바위에게 ‘물
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
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는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대항하여 말하였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는 회중들의 태도를 반역으로 해석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해석할만하게 그들은 구체적으로 모세의 잘못을 욕박
질렀다.

모세는 화가 났으며, 반역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직감하였으며,
그래서 뭔가 강력한 통치수단이 필요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니 이를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태도도 이해해야 한다. 참으로 물 문제는 고질병이
되었다. 고질병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백성들도 물 문제로 지쳤고,

모세와 아론도 지쳤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많아 힘들어 하였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당장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아론은 이런 태도를 반역적인 태도로 해석하였다. 세상에는 항상 이런 반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악한 태도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잠재우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짜증이 난 것이다. 이제 이 회중이 이렇듯 뉘달하는 모습에 정나미가 떨어진 것이다.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일으킨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선하지 못함을 보셨다. 이들이 끝까지 목양을 잘 해야 하는데, 목자의 태도가 선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셨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믿음도 약해졌을 뿐 아니라, 화도 났다. 아마 속으로 이런 놈들은 더 당해야 싸다고 생각하고 기적을 늦추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터뜨리실 계획이셨다.

그러나 모세는 좀 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연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인지 의심이 되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죄를 범하였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반석아 물을 내라!’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하는 말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또 모세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명령만 하도록 하였지만, 모세는 오바액션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썼는가? 그것은 교만하였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믿음이 없음 -> 교만하여짐, ->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냄.

물을 내랴? 시험함. 물아 나오라! 명령.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위함 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기적으로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통치도 기적으로 드러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해야 한다.

신약성경에 오면, 반석은 예수님을, 반석이 깨어진 것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10:4)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7:38)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7:39)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사 44:3)

특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말씀은 곧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와 세상을 적시게 된다는 말씀이다.

담대하라. 세상에는 항상 불신자들이 있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할까 믿음으로 생각해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요한복음 15장 1~5절/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19. 선교 지향적 회중을 위한 목회 리더십, 20. 복음에 대한 자신감 **성경:**

Tag:







